

한눈으로 보는 경제		22일	
코스피지수	2540.51	▲	+9.81
코스닥지수	780.90	▼	-8.48
환율 (원·달러)	1088.50	▼	-4.50

무당·저당 '위풍당당'

웰빙시대 무당·저당 제품 인기몰이

비만·당뇨 우려 설탕 수요 3년새 38% 급감 당 줄인 요거트, 곡물·건강음료 매출 상승

설탕이 비만과 당뇨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설탕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링크아스트릭 기준 지난해 국내 설탕 소매시장 규모는 1430억 원으로 전년 1664억 원보다 14.1% 감소했다. 설탕 수요량이 정점을 찍었던 2013년(2310억 원)과 비교하면 3년 만에 38.1%나 줄었다.

때문에 식품업계에도 당을 넣지 않거나 함유량을 줄여 소비자들이 당 섭취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매출로도 이어지고 있다. 저당 제품이 매출 효과 노릇을 하고 있어 당 함유량과 매출이 반비례한다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다. 당을 줄여 인기를 얻고 있는 주요 제품을 살펴봤다.

● 매일유업, '매일두유 99.89'·'헤이! 미스터 브라운'

매일유업은 곡물음료를 중심으로 무당 제품을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매일두유 99.89(구구팔구)'는 설탕 0%, 두유액 99.89%를 함유해 두유액 그대로의 맛을 살렸다. '헤이! 미스터 브라운 화이트'



빈 밀크(사진)는 퀴노아, 렌틸콩, 오트밀 등의 슈퍼곡물에 흰 강낭콩과 병아리콩이 들어가고 설탕을 전혀 첨가하지 않은 단백질 맛으로 인기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곡물의 특성상 설탕을 넣지 않아야 본연의 깔끔한 맛을 느낄 수 있어 오히려 설탕이 들어간 곡물음료보다 더 많이 찾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 웅진식품, '빅토리아 콜라향'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를 좋아하지만 당이 걱정되는 이들을 위해 웅진식품에서는 콜라향 탄산음료인 빅토리아 콜라향(사진)을 한정 출시했다. 빅토리아 콜라향은 특 쓰는 탄산에, 설탕과 색소 없이 콜라향만을 더한 '0 칼로리' 콜라향 스파클링 음료로 콜라 고유의 향과 청량감을 즐길 수 있다. 웅진식품이 커지는 탄산 시장을 겨냥해 선보인 온라인 전용 탄산 브랜드 빅토리아는 별도의 마케팅 활동 없이도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CJ제일제당, '한뿌리 레드진생티'

건강음료 시장에도 무당 제품이 인기다. CJ제일제당 건강전문 브랜드 한뿌리는 '한뿌리 레드진생티'를 출시했다. 홍삼농축액이 함유된 액상차로, 홍삼 맛이 깔끔하고 부담스럽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다. 특히 무설탕, 제로 칼로리 제품이라 당과 칼로리 등

건강에 신경 쓰는 소비자들은 물론, 건강한 음료를 찾는 20~30대 젊은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풀무원, '액티비아 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스'

식품업계의 저당 트렌드를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제품은 요거트다. 발효유 특유의 신맛을 잡기 위해 당을 많이 첨가하던 것에서 이제는 당 함량을 크게 낮춰 본연의 건강한 맛을 살린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풀무원 원건강생활의 유산균음료 전문 브랜드 풀무원 프로바이오틱스에서 선보인 '액티비아 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스'는 요거트 타입의 건강기능식품으로 한 병(130ml)에 함유된 당이 3g에 불과하다. 이는 일반 우유보다도 낮은 함량에 해당하며 공기밥 1/4 수준으로 칼로리를 낮췄다.

● 드롭탑, 클렌즈 주스

커피전문점 카페 드롭탑은 설탕과 물을 넣지 않고 100% 과일과 채소만을 착즙한 클렌즈 주스(사진)를 선보이고 있다. '그린 테이스', '엘로우 펀치', '오렌지 썸머' 총 3종으로 구성됐으며, 체내의 독소 배출에 탁월한 케일, 밀삭 등 채소에 설탕 대신 달콤한 맛을 더해줄 오렌지, 사과 등 다양한 과일을 넣어 맛과 영양의 밸런스를 맞췄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경제현장.jpg

"내년도 대표 메뉴 미리 맛보세요"



대형레저산업은 22일 경기도 고양 엠블호텔 고양 그랜드볼룸에서 '대형 F&B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명리조트, 비발디파크, 델피노 골프 앤 리조트, 쉐비치 호텔&리조트, 엠블호텔 등 대형 계열 전국 15개 호텔과 리조트의 셰프 50여명이 로컬 식재료를 활용한 내년도에 선보일 시그니처 요리들을 선보였다. 행사에서 소개된 시그니처 메뉴는 2018년 봄부터 전국 대형 리조트에서 만날 수 있다. 김재범 기자·사진제공 | 대형레저산업

"삼성·LG 세탁기 120만대 초과물량 50% 관세"

美 무역위, 세이프가드 권고안 발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일(현지시각) 수입세탁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발표했다.

120만대를 초과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물량에 대해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미국 가전업체 월플이 양사 제품에 일괄적으로 50% 관세를 부과해 달라는 요청했는데, TRQ(저울관세할당)를 120만 대로 설정한 뒤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만 50% 관세를 부과하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TRQ는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 조치다. 삼성과 LG전자는 월플의 요청과 관련해 꼭 필요하다면 TRQ를 145만대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만 관세 50%를 부과해 달라고 ITC에 요청한 바 있다.

ITC는 120만 대 미만 물량에 대한 관세를 놓고선 부과하지 말자는 의견과 20%를 부과

하자는 의견으로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ITC는 이들 의견을 각각 담은 2개의 권고안을 마련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입장에서 최악을 면하긴 했지만, 미국 수출 물량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ITC가 소비자들과 일자리 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월플의 부당한 제안을 적절히 거부했다"면서도 "작은 관세라도 가격을 올려 제품 선택의 폭을 줄이고,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에서 생산된 세탁기 수출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권고안은 미국 유통 및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크게 제한하게 될 것이다"며 "한국기업의 미국 내 기반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현지 공장의 정상적 가동,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네오위즈, 문지수 신임 대표 내정

네오위즈는 문지수(사진) 현 게임은 이사를 네오위즈 신임 대표로 내정했다.

문 내정자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2000년 네오위즈에 입사해 사업지원실장과 네오위즈아이엔에스 대표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일본 자회사인 게임은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인터넷 및 게임에서의 다양한 서비스 경험과 경영 기획, 재무 및 인사를 두루 거친 관리 능력이 강점이다.

네오위즈는 3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문 내정자를 신임 대표로 최종 선임할 계획이



다. 문 내정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IT환경에서 네오위즈는 항상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며 트렌드를 이끌었다"며 "우리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워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기원 현 대표는 등기 이사로 '블레스'와 지적재산권(IP)의 글로벌 서비스에 집중한다. 김명근 기자

스타벅스, 포항 지진피해 복구 성금 지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 이석규)는 22일부터 연말까지 포항 지역에 있는 스타벅스 10개 매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을 지진 피해 복구 성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포항 지진 피해 지역에 구호 물품 전달을 위해 스타벅스 바리스타들이 흥해실내체육관 등 이재민 대피 시설을 매주 2회씩 연말까지 방문해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한다. 현장에서는 음료 총 1만1000잔과 푸드 상품 총 1만1000개 등 8000여만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이재민과 자원봉사자, 현장 담당자 등을 위해 전달할 예정이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이석규 대표이사는 "지진 피해 이재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격투기

"격투홀릭에 빠져 봅시다"...MAX FC 입식격투기 진수 선보인다

25일 경북 안동서 올 마지막 대회

아카리-박성희 한일 챔피언십전 관심 웰터급 고우용 최훈 챔피언십전 불만 걸그룹 축하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

국내 최대규모 입식격투기 단체 MAX FC 안동대회가 25일 열린다.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메이저 격투기 이벤트다.

2018년 일본 현지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세계화를 선언한 MAX FC가 벌이는 2017년 마지막 이벤트다. 안동시와 안동체육관은 일관적인 스포츠대회 유치에서 벗어나 획기적이고 변화를 추구하는 다이나믹 안동의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이번 대회에 많은 공을 들였다. 안동시 곳곳에 대회관련 홍보물과 포스터를 대대적으로 붙였고 격투기를 소개하기 위한 거리 이벤트도 했다.

지역방송을 통해 한 달간 TV광고도 지속적으로 했다. 6000석 규모의 안동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이벤트에 주최사는 5000명 이상 관중 동원을 자신한다.

'버라이어티 격투쇼'를 내건 MAX FC는 경기 이외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제공



국내 최대규모 입식격투기 단체 MAX FC가 주최하는 대회의 전경. 25일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서 열리는 MAX FC11 안동 'The Spirit of a Champion'은 5000명 이상의 관중이 운집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 MAX FC

한다. 대회 전반기 컨테너 리그에는 걸그룹 아모르가 오픈 축하 공연을 한다. 대회중간 휴식 시간에는 11월 25일이 크리스마스 한 달 전이라는 것에 착안, '미리크리스마스' 깜짝 이벤트도 한다. 본 대회는 권영세 안동시장의 개회선언과 함께 MAX FC 공식 홍보대사 모델 이파니의 화려한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 매치업은 챔피언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정신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챔피언 전초전과 잠정챔피언 타이틀전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꽃보다 파이터'라는 부제로 화제가 됐던 여성부 페더급(-56kg) 그랑프리 4강 토너먼트는 차세대 여성부 선두주자들이 참가한다. '강스타'강예진(22, 마산타임스타) '신블리'신미정(25, 대구무인관), '슈수'문수빈(18, 목포스타), '다이어트파이터'최은지(24, 대구피어리스) 등

은 수려한 외모에 출중한 실력도 갖춰 많은 격투팬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

'비보이파이터'고우용(31, K-MAX Gym)과 '코리아마크런트'최훈(30, 안양삼산총본관)이 격돌하는 웰터급(-70kg) 챔피언 도전자 결정전은 MAX FC에서 가장 화끈한 선수들의 대결로 KO 승부가 예상된다. 코메인 이벤트는 100전 베테랑 파이터 곡운섭(41, 대구청호관)과 떠오르는 강자 '맘모스'장태일(24, 마산타임스타)의 대결이다. 베테랑의 자존심과 신성 파이터의 투지가 맞붙는 경기다. 메인이벤트는 한 일전이다. MAX FC 잠정 챔피언 '유니온' 아카리(22, 일본GSB)가 '독손이'박성희(22, 목포스타)와 잠정 챔피언 타이틀 1차 방어전을 갖는다. 이미 3개의 국제 챔피언 타이틀을 보유한 아카리에 도전하는 박성희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지켜보는 경기다.

MAX FC 이홍복 대표는 "2017년 대미를 장식하는 대회가 안동시 최초의 메이저 격투대회가 될 수 있어서 영광이다. 이번 대회가 안동시 뿐만 아니라 한국 입식격투기 역사에 남을 멋진 대회로 기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안동체육관에서 개최되는 MAX FC11 안동 'The Spirit of a Champion'은 IPTV IB SPORTS 채널과 NAVER SPORT 채널을 통해서 오후 7시부터 생중계 된다. 김중권 기자 marco@donga.com

격투대회+어워드+송년의 밤 내달 23일은 '로드FC의 날'

국내 첫 여성부리그 2회 개최

종합격투기 단체 로드 FC(대표 정문홍)가 연말 대회와 송년의 밤 행사를 12월 23일 동시에 개최한다. 로드 FC는 서울시 흥동 그랜드힐튼 서울에서 로드 FC 045 XX와 2017 로드 FC 어워드 및 송년의 밤 행사를 연다.

이번 대회는 파트1과 파트2로 구분돼 진행된다.

파트2인 로드 FC 045 XX는 여성부리그로 여성 파이터들의 경기로 대진이 구성된다. 올해 초 여성부리그를 출범해 국내 최초로 2회 대회 개최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진행되는 로드 FC 영건스 38은 남성 파이터들의 경기로 채워진다. 현재 메인이벤트로 난던에르텐과 라파엘 피지예프의 대결이 확정된 가운데 남은 대진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면 어워드 및 송년의 밤 행사가 열린다. 팬, 선수, 종합격투기 관계자들을 초청하고 각 부분의 시상도 함께 진행된다. 로드 FC는 12월 대회까지 포함해 2017년에만 총 10회의 대회를 개최했다. 11월에는 사드 파동과 여파로 중단됐던 중국에서의 대회를 재개했고, 지상파 최초의 격투 오디션 프로그램 '겁 없는 녀석들'을 제작해 MBC-TV를 통해 방송하고 있다. 최현길 전문기자 choiing2@donga.com